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김 동 배

(연세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개발하였다. 성공적 노화 개념 추출을 위해 25명의 노인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4개의 포커스 그룹을 통해 6개 영역의 성공적 노화 핵심 범주와 78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66문항의 일대일 면접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표본 597부를 무선 분할하여 개발 표본 345부와 타당화 표본 252부의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31문항으로 구성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적 삶', '자기 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 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 그리고 '타인수용' 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값이 .903, 모형 적합도 지수 TLI가 .983, RMSEA가 .057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노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범용적인 척도로 간주되는 '노인의 삶의 질 척도'와 상관분석을 한 결과 $r=.72$ 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공인타당도를 만족시켰다.

주제어 : 한국노인, 성공적 노화, 척도개발, 신뢰도, 타당도

* 이 논문은 2004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4-041-B00366)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2006년 말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88%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17년 노령화지수는 104.7로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07). 따라서 과거에 소수집단으로 이해되었던 노인이 사회의 중요한 다수집단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전체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상의 삶의 질을 향유하는 노화의 과정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조해경, 2002).

지금까지의 노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산업사회 이후 대두되는 노인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성혜영·유정현, 2002). 즉,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4중고(四重苦)를 노인의 주요 문제로 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왔다. 이로 인해 노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나치게 부정적이어서 노인은 병약하고 무기력하며 부담이 되는 존재로서 부각되어져 왔으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노인의 임파워먼트를 약화시키는 위험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능력과 활동능력을 가진 노인의 수가 늘어가고 노인이 다수집단으로 자리 잡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일부 취약계층 노인만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문제 중심적 관점을 넘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며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노인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 1986년 세계노년학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부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성공적 노화의 6가지 차원을 제시한 Ryff(1989)의 '통합모델', 삶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강조한 Baltes와 Baltes(1990)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 그리고 Rowe와 Kahn(1998)의 '적극적 사회참여 모델' 등이 성공적 노화의 대표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문제중심적인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김미혜와 신경림(2005)이 개발한 성공적 노후 척도 외에는 검증된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타당한 척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내의 몇몇 분야에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질적 연구 및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기초적인 인식 및 개념에 대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조사연구가 한 번도 이루어 못했다. 따라서 한국형 척도의 미개발로 인한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화(aging)라는 개념은 문화와 특성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연구된 성공적 노화의 준거 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거대한 사회변동의 물결을 반영하며 문제 중심의 노화 개념을 넘어선 보다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성공적 노화의 한국적 개념들과 척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구성요인들을 고찰한다.

둘째, 한국 노인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알아봄으로써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문항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을 개발한다.

셋째, 심층면접을 통해 개발된 성공적 노화 척도 예비문항에 대한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2. 이론적 고찰

성공적 노화 이론은 미국과 유럽에서 여러 관점으로 발전되어 왔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1986년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노년학회 연례회의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노인에 대한 연구의 시각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실제 성공적 노화에 대한 합의된 개념정의를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성공적 노화는 낙관적인, 긍정적인, 생산적인, 풍요로운, 새로운, 확신하는 노화 등의 여러 가지 개념으로 언급되어 왔으며(조해경, 2002), 잘 늙어가기와 같은 의미로도 혼용되어 왔다(Fontane and Soloman, 1996). 비록 일관적이고 합의된 개념 정의는 어려울지라도 성공적 노화가 사회·문화·심리·신체·환경 요인들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임은 분명하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공적 노화 이론들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성공적 노화 이론은 Jung, Erikson, Peck 외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고전적 발달이론과 Abeles, Ryff, Baltes와 Baltes 등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생애 발달이론으로 구성되고 있다.

Jung의 이론은 인생의 여러 시기 중 중년기에 특히 관심이 많았으며,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정신의 변화가 두드러져 외부세계를 정복하는 데 쏟았던 에너지가 자기 자신의 내적세계로 돌려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최현, 1991). Erikson은 그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노년기의 조화로운 발달의 핵심으로 '자아통합 대 절망'이라는 위기 해결 능력을 지적하고 있다(Hjelle and Ziegler, 1976). 한편 자아분화 대 직업역할 몰입, 신체초월 대 신체몰입, 그리고 자아초월 대 자아몰입 등의 발달과업 수행 여부에 따라 노년기 적응이 좌우된다고 보는 Peck의 발달과업이론은 Erikson의 노년기 발달 논의를 확

장시킨 것으로 '초월'이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Papalia and Olds, 1998). Peck은 이 이론에 기초하여 노인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일, 신체적 안녕, 자아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통한 실존적인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장, 유지, 상실의 보상 등 3대 발달과제를 중요시하는 전생애 발달이론이 있다. Abeles(1987)는 인간발달을 생애 주기 관점의 4가지 주요 테마로 구분하여 전생애적 과정으로서의 발달, 다차원적인 발달, 다방향적 발달, 다결정요소적 발달 등의 복합적인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6가지 새로운 차원 체시를 통해 통합모형을 연구한 Ryff의 성공적 노화 모델은 발달, 임상, 정신건강에 기초한 야심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Ryff가 제시하는 6개의 성공적 노화의 차원은 자기 수용,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자율성, 환경에의 숙달, 인생의 목표, 개인적인 성장 등이다(Ryff, 1989).

Baltes와 Baltes(1990)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은 유럽적 모델로서 전생애 발달 관점에서 이루어진 시도로, 연령에 따른 손실 및 성취, 발달적 유연성을 고려한 전생애(life span)적 모델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김영선·윤진, 1997).

사회학적 관점의 성공적 노화 이론은 크게 '활동이론'과 '삶의 질'에 기초한 연구로 진행되어왔다. 노년기 활동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 이론인 활동이론은 Havighurst와 Albrecht(1953)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 이론은 인간의 대인관계,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더해진다는 것으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활동이론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최근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연구는 Rowe와 Kahn의 적극적 사회참여 모델이다. Rowe와 Kahn(1998)은 성공적인 노화의 구성요소로 낮은 질병률 및 질병에 의한 장애 위험 회피,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 그리고 적극적인 인생참여의 세 가지로 보면서, 지속적인 인생참여야말로 성공적인 노화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회학적 관점에 기초한 연구는 '삶의 질'에 대한 것이다. 삶의 질 개념은 사기, 행복감, 심리적 안녕, 적응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므로, 삶의 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노년학 연구의 주요 주제이다(홍현방, 2001).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 개념을 삶의 질로 보는 입장(Fleming, 2000)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Lane(1994)은 삶의 질을 정치, 사회, 문화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즉, 물리, 환경, 심리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삶의 종합적인 상태,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안녕을 말한다. 객관적인 요소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대표하는 상황조건의 질을 의미하고, 주관적 요소는 주관적인 안녕, 개인의 발전, 성장 등을 대표하는 인간의 질을 의미한다. 하지만 삶의 질은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문화적 변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의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반면, Lawton(1991)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비중을 두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개인적인 역량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견해와 관련하여 삶의 질을 삶의 만족감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도 있다(Cohen-Mansfield, 1990). 이에 대해 George와 Clipp(1991)은 성공적인 노화의 주관적인 평가의 강조에 대해 지나치게 편협한 견해를 가지는 것을 비판하면서 다면적인 관점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성공적 노화 구성개념 관한 연구들

성공적 노화의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신체적 건강,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3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3가지 측면이 별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는데, 그 구성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측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중의 하나가 건강한 삶이다. 이와 관련하여 Schultz와 Heckhausen(1996)는 성공적 노화의 지표를 신체적 건강이라고 보았으며, 적극적인 사회참여 모델을 제시한 Rowe와 Kahn(1998)도 질병을 피해가는 것을 중요한 성공적인 노화 요인의 하나라고 보았다. Ryff(1982)는 신체건강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국내 연구에서도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건강은 가장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은숙·김순자·김소인·전영자·이평숙·김행자·한금선, 1998;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 1998). 이처럼 건강은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는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984년부터 1990년까지 65-95세의 남녀 각 356명으로 구성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 노화 관련 변인을 조사한 미국 Alameda 카운티 연구에서는 네 가지 만성질환(당뇨, 천식, 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우울이 성공적 노화의 결과로 감소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만성질환과 우울이 없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 보았다. 그 외에도 성공적 노화의 예측변인으로 걷기운동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포함된다. 추적 연구의 각 년도 교차 비교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의 깊은 참여와 신체활동, 그리고 정신건강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trawbridge, et al., 1996). 또한 미국의 맥아더 현장 연구에서는 운동을 하는 것과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사회적 관계망이 성공적 노화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eeman et al., 1995). Fries(1980)는 오래 살고 죽기 직전까지 활기차게 사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바람직한 예라고 하였다. Lentzner 외(1992)는 죽기 전 해의 삶의 질이 수명 연장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는 척도가 된다고 하였다. 그 외 많은 학자들이 식이요법과 생활방식이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성공적 노화를 이루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심리·정서적 측면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는 자기효능감, 독립성, 수용, 긍정적 사고, 적응성, 적극적 사고, 진취적 사고, 종교, 임종 등의 요인들이 포함된다(조해경, 2002). 자아존중감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데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학문적 수행이 우수하고, 심리적으로 적응을 더 잘하고, 실패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적절하게 분노를 표현하며,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외적 원인에 귀인하며,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이후에 수행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이훈구,

1997). 또한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자아효능감은 발달의 험오스런 측면에 덜 위험을 받고, 위기와 상실에 대한 대처가 더 지속적이며 풍요로운 도전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Brandtstadter and Rothermund, 1994). 같은 연구에서 노인들의 통제감은 그들이 지각하는 신체기능의 상실과 제한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Featherman(1992)은 성공적 노화를 삶의 과정에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들의 발달이라고 하면서, 수용성, 적극성, 개방성이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았다. 기타 지혜나 종교성 혹은 영성,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의 요인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3) 사회적 측면

성공적 노화에 관한 사회적 측면의 구성요소로는 주로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 경제적 상태 등이 언급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궁할 때 도움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타인들이 있다는 일종의 신념(Wethington and Kessler, 1986)에서 형성되며, 사회적 관계망은 심리적 안녕을 복돋우고 삶의 스트레스에 적응하도록 촉진하는 사회적 지지의 근원으로 간주된다(Rook, 1997; Larson, 1978). 한편 경제적 요인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의 수입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게 됨으로써 노인의 자율성이 향상됨으로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아진다(Mannel and Dupuis, 1996; Campbell, 1981). 이처럼 노년기의 경제활동은 안정된 소득의 확보, 사회발전에의 기여감과 자기 유용감의 확인, 건강유지 효과, 사회적 소외와 고독감의 억제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권중돈·조주연, 2000).

3)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국내 초기 연구들은 주로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박태숙(1992)은 성공적 노화를 노년기 이전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여 생을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정란(1993)은 성공적 노화는 수명, 생물학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인지적 효율성, 사회능력과 생산성, 개인의 통제력, 생활만족 등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적 혹은 질적인 측면의 준거들에 의해 평가된다고 하였다. 김정순(1989)은 노년기에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제 문제에 대한 적응이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으로 보았다. 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은 성공적인 노화를 삶의 질의 차원에서 삶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감의 일치에서 오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보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노인인구의 증가가 현실화되면서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연구가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홍현방(2001)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정의를 위한 문헌연구를 시작으로, 나향진(2002)은 성공적 노화와 노인의 여가에 관한 연구를, 박경란과 이영숙(2002), 성혜영과 유정현(2002), 그리고 강인(2003)은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대한 인식 및 지각에 관한 연구를, 명지대학교 여성가족

생활연구소(2003)는 중년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를, 홍현방(2002)은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 연구를, 하정연과 오윤자(2003)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선택·적정화·보상전략 관련 변인 연구를 하였다. 또한 교육학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어 조해경(2002)은 노인들의 성인학습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논문에서 그는 성공적인 노화란 자신에게 주어진 노화라는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며,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과 노력에 의해 삶의 질을 향유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본 연구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적 상황에 맞는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이 시도되었다. 김미혜와 신경림(2005)는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등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성공적 노화 척도를 개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문헌 연구를 기초로, 한국 노인들을 심층면접하여 성공적 노화에 대한 핵심범주와 하위범주를 설정하고, 도출된 성공적 노화 범주와 그 내용은 노인 포커스 그룹을 통해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성공적 노화 범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이 때 지금까지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문헌 연구에서 도출된 성공적 노화 개념 및 관련 변인을 1차 예비문항과 대조하여 누락된 개념 중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변수를 추가하여 문항을 보완하였다.

1차로 제작된 예비문항은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활용하였으며, 면접은 훈련된 조사자를 통해 1:1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당 유의표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예비문항의 요인 구조를 결정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같이,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좀 더 큰 비중이 있으므로 전체 설문지의 60%를 사용하였고, 40%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 1: 성공적 노화 척도 예비 문항 개발

1) 심층면접

(1) 연구대상

본 심층면접은 한국 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성별과 연령의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은 해당 지역의 노인 관련 실무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현재의 생활

형편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비교적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추천받아, 면접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대화가 가능한 편안한 공간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는 총 25명으로 남성노인은 10명, 여성노인은 15명이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70세 이하가 8명, 71-75세가 6명, 76세 이상이 11명이다.

(2) 연구방법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책임연구자 및 노인복지 박사과정생 등 4명의 면접자들이 2회에 걸쳐 면접방식과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면접을 실시하는 중간에도 진행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1인당 소요 면접시간은 대상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접 내용을 녹취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면접은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되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과 차원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첫째는,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영역별 질문이다.

- ① 자신의 경험: 어떤 경우에 내가 참 잘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 ② 자신의 가치관: 성공적으로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③ 타인(준거대상)과의 비교: 어떤 노인을 보았을 때, 어떤 점을 보고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둘째는, 영역별 차원에 대한 질문이다.

- ① 개인적 차원: 신체적, 심리적, 종교적 차원
- ② 대인적 차원: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차원
- ③ 환경적 차원: 일상생활,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차원

셋째는, 기타 사항들에 대한 것이다.

- ① 과거의 삶에 대해 보람 있고 만족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목적달성 등과 관련한 것
- ② 남은 삶에 대한 보장에 관련한 것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에 대한 평가이다. 가족 관계,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 그리고 현재 활동과 관련한 것 등이다.

위와 같은 개방적 질문을 통해 가능한 한 노인들의 말을 강제로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나온 삶의 경험과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통한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인식을 충분히 서술하게 하였으며, 그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코딩 분류하여 핵심범주를 설정하였다.

(3) 분석결과

25명의 노인들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의 녹취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전체 27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더 큰 범주로 분류한 결과 6가지 영역의 성공적 노화 핵심 범주들로 구분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한국 노인들이 언급하고 있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들은 한국 전통사상인 유교적 가치, 그 중에서도 중용적인 삶의 가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과 김미혜와 신경림(2005)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표 1〉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심층면접 결과

핵심 범주	하위 범주
1. 분수 지킴	분수에 넘치지 않는 삶 관조하는 삶
2. 긍정적 삶	긍정적인 수용 태도 자이통합 죽음의 수용과 준비 삶의 의미와 보람 발견 나와 다른 삶의 수용
3. 자기완성 지향	자기조절 및 통제 의미 있고 보람된 삶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 자기 완성의 삶 지향 지속적인 활동과 배움 성취감
4. 폐 끼치지 않음	신체적 건강 노후대비 자율성 자기책임성
5. 존경 받음	곱게 늙어가는 모습 교양 있는 태도 배푸는 삶 인정과 존중받는 삶 자신과 타인에게 떳떳한 삶
6. 가족 및 친구 친밀성	자녀로 인한 즐거움 자녀들 가정에 대한 염려 자녀·손자녀와 좋은 관계 부부 해로 및 금슬 좋은 친구

2) 포커스 그룹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핵심개념 및 하위개념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노인 포커스 그룹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진 6가지 핵심 범주 및 27개의 하위 범주에 대해 서울과 지방 2곳에서 남녀별로 각 5명씩 총 4개의 포커스 그룹을 통해 그 타당성과 누락된 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제시된 성공적인 노화의 대부분의 개념들에 대해 포커스 그룹 대상자 모두 이의 없이 수긍하였다. 그런데 남녀 간에 보다 중요시하는 범주의 차이는 있었다. 여성노인들은 자녀를 통한 만족과 자립적인 삶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남성노인들은 일할 수 있는 여력과 사회로부터의 인정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남녀 공통적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뭔가 배우고 즐기는 일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단적인 예로 포커스 그룹에서 가장 피해야 할 노년기의 모습에 대해 언급한 사례로 혼자서 외로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거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생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기개발, 그리고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성공적 노화 척도 예비문항 제작

본 연구자를 비롯하여 노인복지전공 박사 1명과 박사과정생 2명이 모여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성공적 노화의 핵심 및 하위 개념들과 그에 대한 포커스 그룹에서의 확인과정을 거쳐 수정된 것을 토대로 하여 성공적 노화 척도의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우선 27개 하위 범주에서 제시된 성공적 노화 개념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의 측정도구들을 참고하여 문항을 제작하였다. 선행연구의 측정도구에 나타나지 않은 개념에 관해서는 심층면접 녹취록을 참고하여 문항을 제작하였다. 한편,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건강, 활동, 생산성, 창조성, 최적화, 자립 등 여섯 영역에서의 47개의 성공적 노화 관련 개념과 비교하여, 심층면접과 포커스 그룹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개념을 문항으로 제작하여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78개의 예비문항을 다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66개의 문항을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예비문항으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66개의 예비문항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언어선택 등의 검토를 위해 20명의 수도권 노인들에게 각 문항을 확인케 한 결과 질문에 대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 2: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1) 탐색적 요인분석

(1) 조사절차

본 연구는 조사 기준일(2005. 11. 1)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읍면) 지역과 여자와 남자 비율을 현재 노인 인구에 비례하여 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도시 지역은 총 180명으로 수도권에 110명, 대전에 70명을 할당하였으며, 중소도시 지역은 총 180명으로 강릉, 군산, 진주에서 각각 60명씩 할당하였다. 농어촌 지역은 총 240명으로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지역의 읍면 단위에 각각 60명씩 할당하였다. 면 대 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석이 불가능한 설문지를 제외한 597부 가운데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전체의 60%인 345부를 무선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유배우동거	유배우별거	사별	미혼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도시	92(26.7%)	남 143(41.4%)	60대 108(31.4%)	188(54.7%)	233(67.5%)				
중소도시	147(42.6%)	여 202(58.6%)	70대 178(51.7%)	14(4.1%)	42(12.2%)				
농어촌	106(30.7%)		80대 58(16.9%)	141(41.0%)	50(14.5%)				
				1(3%)	20(5.8%)				
합	345	합 345	합 344	합 344	합 345				

2005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2006년 고령자통계(통계청, 2006)와 본 연구의 대상자를 비교할 때, 본 연구 대상과 한국 전체 노인이 유사한 분포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자는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무선 추출된 개발 표본(n=345)을 대상으로 SPSS 13.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방법에 있어서 추정방식은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 Method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간 상관을 고려하여 사각회전(Oblimin)을 이용하였다. 문항 간 상관을 고려하여 문항 전체 합과 각 문항의 상관계수가 $r=.30$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인 부하량이 여러 요인에 걸쳐 높게 나타나거나, 어떤 요인에도 낮은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 그리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묶여진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예비문항 개발과정에서 연구자가 핵심범주를 6개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수의 변동 가능성을 열어놓고 핵심범주의 수를 기준으로 ± 1 개를 하여 5, 6, 7개의 요인 수를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보통 요인의 수를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거나 요인 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1차 질적연구에서 6개의 범주가 개발된 경우 그 범주의 수를 요인의 수로 지정하거나 좀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요인수를 ± 1 개를 하여 보다 적합한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고 5, 6, 7개의 요인 수를 지정하여 비교,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요인구조를 토대로 각 요인들의 상관계수와 Cronbach's α 및 반분계수를 계산하였다.

(3) 분석 결과

개발 표본의 자료를 이용하여 5, 6, 7개의 요인 수 지정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세 요인 모델의 해석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66개 문항 가운데 문항 전체 합과의 상관분석에서 $r=.30$ 이하인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에서 초기 공통분(共通分)이 $.30$ 이하로 낮은 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1

차 요인분석 결과 .40 이하의 낮은 부하량과 중복 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5요인, 6요인, 7요인 모델이 각각 32문항, 31문항,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분석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지를 보여주는 KMO 테스트에서 세 요인 모델 모두 .9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p < .001$) 변수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뢰도 검사로는 내적 일관성 분석, 검사-재검사법, 반분법 등이 있으나 검사-재검사법은 본 조사가 시차를 두고 실시한 것이 아니어서, 내적 신뢰도 분석과 반분법을 이용하였다. 문항 내적 신뢰도에 있어서 Cronbach' α 값은 5요인 모델이 .893, 6요인 모델이 .903, 7요인 모델이 .911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또한 반분 신뢰도는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에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5요인 모델이 .865, 6요인 모델이 .845, 7요인 모델이 .904로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일부 요인구조행렬에서 .40 이상의 요인 부하량이 여러 요인에 걸쳐 나타나는 것은 가장 높은 요인 부하량을 가진 요인과 다른 요인 간의 차이가 뚜렷하거나 패턴행렬을 참고했을 때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세 요인 모델 모두가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해석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심층 면접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개념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6요인 모델을 선정하였다(〈표 3〉 참조). 요인 간 상관은 〈표 4〉와 같이 6요인 모델에서 $r = .145$ 에서 $r = .508$ 사이로 나타나 상관인 전혀 없거나 지나치게 낮은 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요인 모델의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과 그 요인에 대한 명명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6요인 모델 요인패턴행렬 및 요인명

요인명	문항	요인					
		1	2	3	4	5	6
자율적 삶	47. 나는 내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가능한 한 남에게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641					
	38.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산다	.601					
	44. 나는 지금도 정신이 맑아서 사리분별에 큰 문제가 없다	.564					
	64. 나는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	.554					
	36. 나는 외모를 단정하고 깨끗하게 가꾼다	.546					
	65.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왔다	.514					
	34. 나는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474					
	58. 나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470					
	53. 나는 내 분수에 맞는 의식주생활을 한다	.424					
자기완성 지향	25. 나는 평생토록 하고자 하는 활동(일, 취미 등)이 있다	.652					
	27. 나는 남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619					
	20. 나는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한다	.603					
	23. 나는 내가 하는 활동(일, 취미 등)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478					
	42. 나는 기회가 되면 남을 위해 물질을 기부한다	.476					
17. 나는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	.445						
적극적 인생 참여	48. 나는 사회활동(여가 및 종교활동 등)에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다	.642					
	59. 내가 참여하는 모임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621					
	46. 나에게서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한 친구가 있다	.606					
	60. 나는 친구들을 잘 사귀는 편이다	.573					
37. 나에게서 여가 혹은 종교활동 등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한 친구들이 있다.	.559						
자녀에 대한 만족	28.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원만하다	.802					
	31. 나의 자녀들은 나에게 효도를 잘 하고 있다	.787					
	30. 나의 자녀들은 형제자매간에 서로가 우애 있게 잘 지낸다	.656					
	26. 나는 나의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617					
	39. 나의 자녀들의 가정은 화목하다	.605					
자기 수용	21. 나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479					
	7. 나의 지나온 삶이 보람되었다	.445					
	11.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족스럽다	.433					
타인 수용	22. 나는 속상한 일을 있을 때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는다	.518					
	2. 나는 젊은 세대의 입장을 잘 수용하는 편이다	.479					
	3. 나는 자녀나 남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	.476					

<표 4> 6요인 모델 요인 간 상관관계

요인	1	2	3	4	5	6
1						
2	.345					
3	.417	.324				
4	.508	.260	.330			
5	.251	.145	.169	.272		
6	.376	.187	.288	.294	.173	

2) 확인적 요인분석

(1) 조사 대상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은 앞 절에서 보듯 전체 설문지 597부 중 무선 분할한 타당화 표본 252부를 선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표 5>에서 보듯 개발표본과 큰 차이가 없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대도시	85(33.7%)	남 86(34.14%)	60대 74(29.44%)	유배우동거	136(55.1%)	초졸이하	163(65.5%)
중소도시	98(38.9%)	여 166(65.9%)	70대 151(59.9%)	유배우별거	9(3.6%)	중졸	28(11.2%)
농어촌	69(27.4%)		80대 27(10.7%)	사별	102(41.3%)	고졸	39(15.7%)
				미혼	0(0.0%)	대졸이상	19(7.6%)
합	252	합 252	합 252	합	247	합	249

(2) 분석방법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모형을 평가하는 전반적 적합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치는 χ^2 통계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통계량은 자료에 대한 정규분포를 토대로 계산되는 것으로, 자료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TLI*(Tucker-Lewis 또는 Non-Normed Fit Index, NNFI),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등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참고하였다. 증분 적합도 지수인 *TLI*,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 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이며, 그리고 .10보다 크면 바람직하지 않은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and Cudeck, 1993). 측정변수의 문항들은 같은 하위 요인의 측정값을 합산하여 단일문항으로 만들었다. 추정방식은 자료의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우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였는데,

분석에 앞서 측정변수들의 정규성 검토를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례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왜도가 2를 넘지 않으며 첨도가 7을 넘지 않으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Curran, West, and Finch, 1996). 따라서 본 연구 모형에서는 각 문항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문제를 나타내는 문항이 없으므로 정규성을 가정하고 최우추정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해석 가능성이 가장 적합한 6요인 모델 외에 5요인 모델과 7요인 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세요인 모델 모두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델 적합도를 검토한 것은 세요인 모델 모두가 타당한 해석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인 수에 대한 통계적 타당도를 재검토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표 6>과 같이 적합도 기준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어 세 모델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 세 요인 모델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i>df</i>	<i>P</i>	<i>TLI</i>	<i>CFI</i>	<i>RMSEA</i>
5요인 모델	950.897	454	0.000	0.978	0.981	0.066
6요인 모델	878.282	480	0.000	0.983	0.985	0.057
7요인 모델	1149.715	573	0.000	0.977	0.980	0.063

세요인 모델 모두가 적합도 판정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모델 간 적합도 차이가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명한 모델을 택하게 된다. <표 6>의 결과에서 6요인 모델이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석의 타당도와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6요인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최종 채택되었다.

3) 공인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성공적 노화 개념과 유사한 '노인의 삶의 질 척도'(이형석 외, 2003)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점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 척도는 노년기를 평가하는 가장 범용적인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공인타당도 검증 척도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r=.72$ 로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성공적 노화 하위 요인들도 $r=.40$ 에서 $r=.56$ 까지 중간 정도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국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점수가 높으면 노인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인타당도를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표 7〉 성공적 노화 요인과 삶의 질 상관관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성공적노화 전체	삶의 질
요인1	1.00							
요인2	.38	1.00						
요인3	.30	.34	1.00					
요인4	.38	.40	.38	1.00				
요인5	.38	.23	.17	.36	1.00			
요인6	.19	.35	.25	.44	.31	1.00		
성공적노화 전체	.66	.72	.62	.77	.55	.58	1.00	
삶의 질	.48	.49	.46	.56	.40	.44	.72	1.00

5. 논의와 결론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한국 노인을 위한 성공적 노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심층면접과 포커스 그룹을 통해 척도 문항을 개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성공적 노화 구성요인을 결정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과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척도와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 및 공인타당도를 확인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심층면접과 포커스 그룹을 통해 27개의 하위 범주와 분수 지킴, 긍정적 삶, 자기완성 지향, 폐 끼치지 않음, 존경 받음, 가족 및 친구 친밀성 등 6가지 영역의 성공적 노화 핵심 범주가 선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66문항이 채택되었다.

개발된 66문항에 대해 수집된 표본($n=597$)을 6 : 4로 무선 분할하여 개발 표본($n=345$)과 타당화 표본($n=252$)을 구성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5요인, 6요인, 7요인의 세 요인구조를 추출하고, 이 세 가지 요인 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요인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최종 선정되었다. 적합도 지수가 TLI 가 .983, CFI 가 .985, 그리고 $RMSEA$ 가 .057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Cronbach's Alpha 내적 일치도가 .903, 반분 신뢰계수가 .845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노인의 삶의 질 척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72$ 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공인타당도를 만족시켰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과 검증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6요인의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는 '자율적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 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 수용', 그리고 '타인 수용' 등으로 구성된다. 1차 질적연구에서 도출된 6개의 범주 가운데 '분수 지킴'과 '긍정적 삶' 범주는 6요인 척도의 '자기 수용'과 '타인 수용' 요인에, '자기완성 지향' 범주는 동일하게 '자기완성 지향'과 '적극적 인생 참여' 요인에, '폐 끼치지 않음'과 '존경받음' 범주는 '자율적 삶' 요인에, 그리고 '가족 및 친구 친밀성' 범주는 '자녀에 대한 만족' 요인에 잘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의 '중용적인 삶', '자식에게 투영된 삶', '내 한 몸 추스르는 삶'과 김미혜와 신경림(2005)의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 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의 구성 요인과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 노인들은 중용적인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기완성을 지향하고 동시에 자기와 타인을 수용하는 것을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기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미혜와 신경림(2005)의 성공적 노후 척도를 비롯한 기존 성공적 노화 개념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공적 노화 척도는 ‘적극적 인생 참여’와 같이 적극적인 개념이 강화된 특징을 갖고 있으며, 또한 ‘자기 수용’과 ‘타인 수용’ 요인은 한국 노인의 중용적인 삶의 가치를 보다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외국의 성공적 노화 인식 및 개념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비교할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국 노인들이 갖고 있는 성공적 노화 개념은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건강이 단순히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이 아닌 자신과 더불어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건강을 말하는 것이라든지, 부유하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 보다는 분수를 지키고, 단정하며,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보다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현재 노인 연령층이 대부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의 굶주림과 소외 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세대라서 그런지 외적인 조건보다는 인간관계에 비중을 두는 삶을 추구하며, 현재의 여건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노년학 분야에서 서구식 성공적 노화 모델들은 규범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그 모델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른 가치들을 간과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모델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노인들을 주변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정경희, 2007; 한경혜, 2000)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개념정의의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무선표집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전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노인의 삶의 질 척도와외의 공인타당도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노인 자신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최적화된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과 고령화 사회의 한국 노인에게 대한 노화 연구 및 노인복지 실천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론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성공적 노화 척도는 문제 중심적 관점을 넘어서 전체 노인에게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다. 본 성공적 노화 척도의 개념과 문항을 활용하여 노년기를 예측·진단하는 데 활용할 뿐 아니라,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학교 등에서 성공적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취약한 성공적 노화 영역을 지원하는 것, 혹은 맞춤형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는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지만 그 표본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할당표집 방식을 채택했지만 현실적인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엄격한 기준으로 표집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조사 시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조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비

노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작업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척도가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장·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노년기가 확장되면서 연령대의 차이를 고려한 척도 개발이나, 예비 노년층을 위한 척도 개발, 그리고 일반 노인과 재가 및 시설 노인 대상에 따른 적합한 척도 개발과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위한 척도 개발 등이다.

참고문헌

- 강인. 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2): 95-116.
- 권중돈·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김미혜·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김영선·윤진. 1997. "중고령 근로자의 성공적인 직무적응에 관한 연구: Baltes의 성공적인 노화 이론의 적용". 『한국노년학』 17(2): 139-156.
- 김정순. 1989.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 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 나향진. 2002.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의 여가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3): 131-163.
-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2003. "노년기 조망 : 중년 세대의 성공적 노화". 『여성 가족생활 연구 보고서 3』.
- 박경란·이영숙. 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박은숙·김순자·김소인·전영자·이평숙·김행자·한금선. 1998.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28(3): 638-649.
- 박태숙. 1992. "노인의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혜영·유정현. 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2): 75-93.
- 이형석·김도관·고혜정·구형모·권의정·김지혜. 2003. "노인 삶의 질 척도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859-881.
- 이훈구. 1997. 『행복의 심리학』. 서울: 법문사.
- 정경희. 2007. "노년학에서의 '성공적 노화'의 논의". 『성공적 노화』.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조해경. 2002.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 역. 1991. 융 심리학 입문. C. S. Hall, and V. J. Nordby. 1973.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서울: 범우사.
- 최혜경·백지은·서선영. 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10.
- 통계청. 2006. 고령자 통계.
- 통계청. 2007. 장애인구추계.
- 허정연·오윤자. 2003.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선택·적정화·보상책략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1(2): 131-144.

- 한경혜. 2000. “신노년층 문화와 성공적 노화”. 한국가족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정란. 1993. “노인교육 교육과정 개발 실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현방. 2001. “성공적 노화 개념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현방. 2002.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22(3): 247-261.
- Abeles, R. P. (Ed.). 1987. *Life-Span Perspectives and Social Psycholog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altes, M. M., and P. B. Baltes.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Baltes, P. B., and Baltes, M. M.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Behavioral Sciences(1-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ndtstadter, J., and Rothermund, K. 1994. “Self-percepts of Control in Middle and Later Adulthood: Buffering Losses by Rescaling Goals”. *Psychology and Aging* 9: 265-273.
- Browne, M., and R. Cudeck.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pp. 136-162. in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edited by K. Bollen, and J. S. Long. Newbury Park, CA: Sage.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Publications.
- Cohen-Mansfield, J. 1990. “Perceived Control, Reinforcement,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Community Elderly”.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9(4): 492-503.
- Curran, P. J., West, S. G., and J. F. Finch.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Featherman, D. 1992. “Adaptation to Old Age”. in *Aging, Money, and Life Satisfaction*, edited by N. E. Cutler, D. W. Gregg, and M. P. Lawt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Fleming, D. 2000. “The Meaning of Lifelong Learning in the Lives of Selected Sage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Wyoming.
- Fontane, P. E., and J. C. Soloman. (Eds.). 1996. “Aging Well in Contemporary Society, Part II”.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9(3).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Fries, J. F. 1980. “Natural Death, and the Compression of Morbidit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03(3): 130-135.
- George, L. K., and E. C. Clipp. 1991. “Subjective Components of Aging Well”. *Generations* 15(1): 57-60.
- Havighurst, R. J., and R. Albrecht. 1953. *Older People*. New York: Longmans.
- Hjelle, L. A., and D. J. Ziegler. 1976. *Personality theory: Basic assumptions,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McGraw Hill.
- Lane, R. E. 1994.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Person: A New Role for Government?” *Political Theory* 22: 219-252.
- Larson, L. 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1): 109-125.
- Lawton, M. P. 1991. *Ag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Health*. London: John Wiley & Sons.
- Lentzner, H. R, Pamuk, E. R., Rhodenhiser, E. P., Rothenberg, R., and E. Powell-Griner. 1992. “The Quality of Life in the Year before Year”. *Am J Public Health* 82: 1093-1098.

- Mannel, R. C., and S. Dupuis. 1996. "Life Satisfaction". in *Encyclopedia of Gerontology*. 2, edited by J. E. Birren.
- Papalia, D. E., and S. W. Olds. 1998. *Human Development*. 7th Ed. New York: McGraw Hill.
- Rook, K. 1997. "Positive and Negative Exchanges: Weighing Their Effects in the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52: 167-169.
- Rowe, J. W., and R. H. Kahn.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Dell Publishing a Division of Random House.
- Ryff, C. D. 1982. "Self-Perceived Personality Change in Adulthood and Ag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08-115.
- Ryff, C. D. 1989. "In the Eye of Beholder: View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 *Psychology and Aging* 4: 195-210.
- Schultz, R., and J. Heckhausen. 1996. "A Life span model of successful aging". *American Psychologist* 51(7): 702-714.
- Seeman, T. E., Berkman, L. F., Charpentier, P., Blazer, D., Albert, M, and M. Tinetti. 1995. "Behavioral and Psychosocial Predictors of Physical Performance: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50A(4): M177-M183.
- Strawbridge, W. J., Cohen, R. D., Shema, S. J., G. A. Kaplan. 1996. "Successful aging: Predictors and Associated Activities". *Am J Epidemiol* 144: 135-41.
- Wethington, E., and R. C. Kessler.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78-89.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lderly's Successful Aging Scale

Kim, Dongbae
(Yonsei University)

In phase 1 of the study, data for the construct and items of KESAS(The Korean Elderly's Successful Aging Scale)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a purposive sampling group of 25 elderly people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four groups. Content analysis was applied to the data and from this analysis were emerged six key categories of successful aging. In phase 2 of the study, 78 items were collected from the data of 2 sets of interviews mentioned above. Through pilot test, preliminary 66 items are selected. In phase 3 of the study, 597 cases collected from the survey were divided randomly into 345 developmental samples and 252 validity samples. The items were examined exploratorily with the developmental samples and confirmatorily factor analysis with validity sampl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hypothesized six-factor structure of KESAS, which finally resulted in consisting of 31 items. Six factors are as follows: 'autonomous life', 'self-completion orientation', 'positive life participation', 'satisfaction with one's offsprings', 'self-acceptance', 'other-acceptance'. Cronbach's alpha estimate and split-half estimates of the scale were .903 and .845, which confirms that the scale has reliability. This six-factor model exhibited a good fit on the basis of the overall fit measure criteria (TLI=.983, RMSEA=.057) acquired by using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reover, KESAS was significantly related highly($r=.72$) to the 'Quality of Life for the Korean Elderly'. This proved concurrent validity of the scale.

Key words : the Korean elderly, successful aging, scale development, reliability, validity

[논문 접수일 : 07. 10. 17 게재 확정일 : 07. 12. 24]